바다 건너 친구

김종수

나에겐 특별한 친구가 있다. 그러나 그를 만난 지 이제 4년이라 '오래된' 친구로 부르기는 궁색할지 모른다. 비록 '짧다고 할 수 있는' 4년의 시간이지만 이 친구와의 만남은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해 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를 통해 알게 된 아니 알아 가고 있는 재일동포의 삶은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그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한 '한국-재일-일본 청년포럼 2001' 에서였다. 한일청년포럼은 재일동포 청년들이 매개가 되어 한국과 재일동포, 일본 청년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1997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당시에 재일동포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곤 거의 없었다. 그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호기심이 강했을 뿐이다. 재일동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타의와 자의로 현해탄을 건너간 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정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며 민

단과 조총련으로 갈라져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을 만나 처음 놀란 것은 우리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만난 그들 대부분이 우리말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본 땅에서 태어나 일본 사회에서 커 왔을 사람들이 우리말과 전통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신기하다' 는 생각만 하였다. 그들이 왜 그토록 우리말과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잊은 채 말이다. 차츰 그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배워 가면서 일본에서 '코리안' 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존경' 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친구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일본식의 이름인 '히루야마 가쯔야' 로 살아왔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 차별을 받은 경험(내 친구의 책가방에 '조선으로 돌아가라' 라고 칼로 글을 새긴 다음 그 위에 물감을 발랐다고 한다)이 있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신이 한국인으로 알려지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고 한다. 그는 어릴 때 받았던 차별로 인해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어 일본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인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후 재일동포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재일동포 학생단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한국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말도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그는 차별받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 의 꿈을 접고 재일동포 청년단체에서 활동할 것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는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해지는 많은 차별을 극복하며 자신의 조국과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본에서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재일동포' 라는 존재에 대해 너무나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적' 을 북한 국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재일 동포들의 삶과 존재에 대해 너무나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과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친구로서 '연대감' 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가 활동하고 있던 단체 이름은 '재일한국청년연합' 이었다. 그러나 2003년에 들어서 '재일코리안청년연합' 으로 조직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그 친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 목표는 세 가지라고 한다. 첫째는 많은 재일동포 청년들이 모여서 여러 학습을 통해 코리안이라는 자기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존 감정이 넘치는 풍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둘째는 일본과 한반도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는 가교가 되어 이 지역에서 풍요로운 문화를 창조할 줄 아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를 사는 청년으로서 역사와 현재를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일동포 청년들이 재일동포사회,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의 인권과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문제를 시인하자 일본 사회는 재일동포들에 대해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연일 북한에 대한 왜곡 · 과장된 기사를 보도하면서 재일동포들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있다. 민족학교(주로 조총련계열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말과 전통을 배워 오고 있던 많은 청소년들이 '조국' 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가해지고 있는 재일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폭력은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2003년 일본 긴키변호사연합회에서 오사카의 민족학교에 다니는 1천 76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본인으로부터 차별 대우나 놀림 등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들이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48.3%나 됐다는 조사 결과가 실린 신문 기사를 보았다. 이것은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일본사회는 우리 동포들을 오히려 더 차별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재일동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친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감수성' 이 민감한 청소년들이 겪게 될 '정체성'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친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을 바꾸어서 재일동포 조직에서 이탈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단체명에서 '한국' 또는 '조선' 이란 단어는 일정한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미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코리안' 이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입장을 가진 청(소)년들이 친구의 단체에 가입하여 '코리안' 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처음에는 도대체 '한국' 이라는 단어와 '코리안' 이라는 단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한 것이었다.

북일 정상회담 이후 재일동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국교 정상화' 문제라고 한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개발' 문제로 인해 아주 적대적이다. 일본인의 대북 적대적 인식은 일본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친구와 재일동포들의 '인권' 과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여겨진다.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일동포에 대한 테러와 폭력은 일본 사회의 건강성마저 의

심하게 한다. 모든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린 여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일본 사회의 조직적 폭력은 상식 이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재일동포에 대해 고질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민족차별'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취직과 진학에서 받고 있는 차별도 해결할 과제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재일동포들의 지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일본 사회에서 재일 코리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는 것이다.

친구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과연 나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쉬우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동포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리라. 그가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가 실현되어 친구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바다 건너'의 친구를 생각한다. ■

김종수 tongil@kyc.or.kr |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한국-재일-일본 청년포럼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이며,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